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제6회

한글 손편지

존경하는 주시경 선생님께

평하! 주시경 선생님.

깜작 놀라셨죠? 죄송해요.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사말 이에요.

저도 평수를 좋아하지만 선생님이 '한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열쇠는 그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 하셨던 것과 다르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한글을 아끼지 않고, 줄임말이나 새로운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한편으로는

선생님 덕분에 우리말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글'을 생각하면 세종대왕 밖에 모르던 저인데 이번에 주시경 선생님의 책을 읽고 소중한 한글이 지금까지 어떻게 잘 이어져 왔는지 알고,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을 만들어 내기만 하고 지켜내지 않았었다면 저는 지금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

선생님 별명이 작보따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별명이에요. 선생님이 보따리 가득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인기 만점 이셨을 것 같아요.

비록 선생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